

01 2027학년도 수시 원서

원서 쓰기 전 마지막 점검 12가지

한 장으로 보는 점검표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	숫자부터	2
02	먼저 넷	3
03	나머지 여덟	4
04	언제 무엇을	5
05	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**한 장으로 보는 열두 가지** — 자격·최저·일정·서류 넷과 판단 여덟
- ◆ 지원자격에만도 걸릴 자리가 이만큼 — 졸업 기준일 1,888줄 · 학교장 추천 1,071줄
- ◆ **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** — 여름에 안 하면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
- ◆ **정시 선보다 낮은 자리는 쓰면 안 되는 까닭** · 마감 하루 전에 비워 두시라는 말씀

01 · 숫자부터

되돌릴 수 없는 자리들

「원서는 다 냈는데, 뭘 놓친 건 아닐까요.」

9월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. 그리고 **대개 이미 늦었습니다**. 원서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**넌 뒤에 고칠 수 없기**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자료는 **내기 전에** 보시는 것입니다.

2027학년도 수시 요강 **6,482줄**을 훑어 보면, **지원자격 문장에만**도 **걸릴 자리가** **이만큼** 있습니다.

지원자격에 이런 조항이 있는 자리	줄
졸업 시기 기준일을 못 박음	1,888
학교장 추천이 필요	1,071
검정고시를 따로 언급	989
추천 인원제 제한	888
국내 정규 고교로 한정	812
학교폭력 조치를 명시	728

여기에 **수능최저**(46%가 겁니다)와 **고사일**(논술은 55%가 사흘에 몰립니다)이 더해집니다.

이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그 원서는 죽습니다. 그리고 **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**. 그래서 가장 아깝습니다. 다음 면부터 **열두 가지**를 순서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,482줄을 저희가 집계. 지원자격 조항은 낱말로 센 것이라 **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습니다** — 반드시 요강 원문을 읽으십시오.

02 · 먼저 넷

자격 —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

하나 — 지원 자격

- ☐ 졸업(예정) 시기 가 요강의 기준일에 맞는가
- ☐ 학교장 추천 이 필요한 자리인가 — 필요하면 학교에 신청했는가
- ☐ 추천 인원 제한 이 있는가 — 교내 경쟁이 먼저 있습니다
- ☐ 졸업생·검정고시라면 지원할 수 있는 자리인가

추천 인원 제한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. 「고교별 1명」인 자리는 학교 안에서 먼저 정해집니다. 원서 마감에 맞춰 움직이시면 늦습니다 — 학교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.

둘 — 수능최저

- ☐ 여섯 장 각각의 최저 문장을 옮겨 적어 보았는가
- ☐ 「합」인지 「각」인지, 몇 개 영역 인지 확인했는가
- ☐ 탐구 를 평균으로 세는지 택1로 세는지 보았는가
- ☐ 한국사 조항이 있는지 보았는가

최저를 못 맞췄을 때 남는 장이 몇인지 세어 보십시오. 여섯 장이 다 최저를 걸고 있으면 수능 하루에 여섯 장이 함께 걸립니다.

셋 — 일정

- ☐ 여섯 장의 대학별고사·면접 날짜 를 한 달력에 찍었는가
- ☐ 같은 날에 두 곳 이 들어 있지 않은가
- ☐ 고사장 이 어디인지, 갈 수 있는 거리인가
- ☐ 수능 전에 치르는 것 이 몇 개인가

넷 — 서류

- ☐ 제출 서류의 마감 시각 을 시간 단위로 확인했는가
- ☐ 자기소개서를 받는 자리라면 기재 금지 항목 을 확인했는가
- ☐ 추천서가 필요하면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렸는가
- ☐ 원서에 적은 연락처 가 지금 쓰는 번호인가

마지막 항목이 12월에 문제가 됩니다. 충원 통보는 전화로 오고, 못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.

03 · 나머지 여덟

판단 — 여기서 갈립니다

앞의 넷이 「죽지 않게 하는 것」이라면, 여기부터는 「살아 있는 원서로 만드는 것」입니다.

#	무엇을	왜
5	갈래를 세어 보았는가	여섯 장이 한 갈래에 몰리면 함께 무너집니다
6	반영 과목으로 등급을 다시 계산했는가	대학마다 등급이 달라집니다
7	작년 모집 인원과 견주었는가	줄었으면 선이 올라갑니다
8	컷을 세 해 보았는가	한 해는 톱니다
9	정시로 갈 수 있는 선을 세어 두었는가	그보다 낮은 자리는 쓰면 안 됩니다
10	여섯 장의 순위를 가족이 정했는가	충원 전화는 몇 분 안에 답해야 합니다
11	붙으면 갈 자리인가	등록하면 정시가 닫힙니다
12	학생이 납득하고 있는가	다니는 사람은 학생입니다

9번을 특히 보십시오.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 정시로 갈 수 있는 선보다 낮은 자리에 원서를 쓰는 것은 스스로 문을 닫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. 정시 선을 먼저 세어 두고, 그 위쪽으로 여섯 장을 배치하십시오.

12번은 마지막에 두었지만 무게로는 첫째입니다. 부모가 정한 자리에 붙으면 그 3년이 힘들어집니다. 학생이 「여기라면 다니겠다」 고 말한 자리만 넣으십시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항목의 순서와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.

04 · 언제 무엇을

달력으로 보는 차례

열두 가지를 언제 하느냐가 실은 더 중요합니다. 늦으면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.

언제	해야 할 것	늦으면
여름 (7~8월)	자격 확인 · 추천 신청 · 반영 과목 재계산	못 합니다
원서 직전	갈래 배분 · 일정 달력 · 정시 선 세기	못 고칩니다
원서 기간	서류 · 연락처 · 마감 시각	마감으로 끝
10~12월	대학별고사 · 면접 · 수능	—
12월~	발표 · 충원 전화 · 등록	몇 분 단위

맨 윗줄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학교장 추천은 교내 절차가 따로 있고 여름에 정해집니다. 원서 기간에 알아보시면 이미 다른 학생에게 갔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열두 가지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. 자격·최저·일정·서류는 요강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. 컨설팅 비용이 값을 하는 자리는 갈래 배분과 순위 정하기 정도입니다.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사지 마십시오. 그리고 읽어 오신 분과의 상담이 훨씬 깊어집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원서를 앞두고 하시는 질문

Q. 원서를 낸 뒤에 바꿀 수 있나요?

대부분 못 바꿉니다. 원서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.

접수 기간 안에 취소나 변경을 받는 대학이 일부 있지만 기간과 조건이 대학마다 다르고, 마감 뒤에는 어디도 안 됩니다.

그래서 「일단 내고 나중에 생각하자」가 가장 비싼 판단입니다. 특히 고사일이 겹치는지는 낸 뒤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.

마감 하루 전을 「점검하는 날」로 비워 두십시오. 여섯 장을 나란히 놓고 앞의 열두 가지를 훑는 데 두 시간이면 됩니다.

Q. 여섯 장을 다 써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여섯은 한도이지 할당량이 아닙니다.

맞는 자리가 넷이면 넷만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. 억지로 채운 두 장은 대개 정시 선보다 낮은 자리가 되고, 그런 자리는 붙으면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— 수시에 등록하면 정시가 닫히기 때문입니다.

다만 「쓸 자리가 없다」와 「알아보지 않았다」는 다릅니다. 앞서 보셨듯 반영 과목을 다시 계산하면 등급이 달라지는 곳이 있고, 약술형처럼 덜 알려진 자리도 있습니다. 세어 보고 넷이면 넷을 쓰시고, 안 세어 보고 넷이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원서에서 잃는 것은 대개 실력이 아니라 확인입니다. 내기 전 두 시간이 여섯 장을 살립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. 개별 대학의 자격·일정·최저는 실지 않았습니니다. 요강은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각 대학 입학처의 최종 요강을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